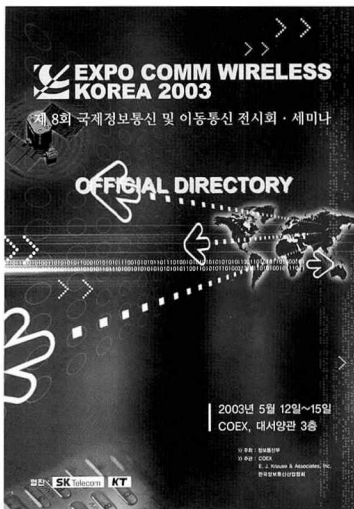


## 유비쿼터스가 눈 앞에!

# 제8회 국제 정보통신 및 이동통신 전시회 · 세미나

( EXPO COMM WIRELESS KOREA 2003 )



“최근 정보통신 산업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국제 정보통신 및 이동통신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회의 화두는 단연 ‘유비쿼터스’였다. 국내외 최대 정보통신 메이저업체들이 참여해 각종 최신기기들을 선보이며, 미래 정보사회를 점치게 했던 전시회였다는 평이다.”

협회에서는 지난 5월 12~15일까지 서울 코엑스 대서양관 3층에서 국내 최대 통신관련 전시회인 ‘제8회 국제 정보통신 및 이동통신 전시회 · 세미나(EXPO COMM WIRELESS KOREA 2003)’를 개최했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본 협회와 COEX, E.J.Krause & Associates, Inc가 공동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5개국 50업체가 참여했으며, 삼성전자, LG전자, KT/KTF, SK텔레콤, 퀄컴 등 메이저 모바일 업체들이 참여했다.

전시된 제품은 모바일 관련 품목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동전화기의 삼성전자/LG전자, 이동전화 서비스의 SK텔레콤/KTF, 계측기의 안리쓰/아드반테스트/모벤스, 무선인터넷의 지오텔/그래텍/모바일웨이브/로코모, 칩 쪽의 퀄컴 등이 참여, 최신 기술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첨단 기기들의 기술 경연의 현장을 사진과 함께 살펴보자.

SK텔레콤은 이번 전시회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기로도 가능한 유비쿼터스 세계를 실현한다(Any

Time, Any Where, Any Device, Realizing Ubiquitous World)'는 기치 아래 '유비쿼터스 멀티미디어-June', '유비쿼터스 인터넷-NATE', '유비쿼터스 페이먼트-MONETA' 등 크게 3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각종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시연했다.

'유비쿼터스 멀티미디어' 공간에서는 화상전화, 동영상 메일, TV 스트리밍 방송, VOD 등 'June' 서비스를 체험하게 구성했으며, '유비쿼터스 인터넷' 공간에서는 모바일메신저 '네이트온', 홈오토메이션(HomeCare), 위치기반 서비스, 네트워크게임, MMS 등 NATE의 각종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었다.

'유비쿼터스 페이먼트' 코너에서는 모네타 서비스를 이용, 요금결제·예금인출·자동판매기 이용·지하철 요금 지불 등은 물론 무선인증을 통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까지 발급 받아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붙였다.

KT는 KTF와 더불어 초고속무선인터넷, 홈미디어, 홈네트워크 등 6종의 통신서비스를 출품했다. KT는 ▲초고속 무선인터넷 네스팟(Nespot) ▲메가패스 홈미디어, 클린아이, 홈네트워크 ▲비즈메카 Ipos ▲스마트카드 ▲KTF의 CDMA ▲휴대폰 단말기 등 유무선 종합통신서비스를 선보였다.

### 삼성, 수출항 제품 코너 마련 주목 끌어

이동전화 단말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의 기술력을 뽐내는 자리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리더십'이란 전시테마로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의 이미지를 강조, 휴대폰 수출 지역 제품을 대거 선보이는 '수출항 제품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수출항 제품 코너에 GSM/GPRS 카메라폰, 와이폰, 3세대 UMTS폰 등 각 지



이번 전시회에는 보다 다양하고 실속있는 제품들이 대거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전시회의 주요 테마는 '유비쿼터스'였으며, 직접 시연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띄었다.



이번 전시회에도 메이저 업체들은  
신기술을 선보이며 자사의 기술을  
홍보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특히 삼성전자는 수출형 제품들을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휴대폰 기술을 자랑하였다.

역별 신제품 전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내수 시장을 겨냥한 코너에서 삼성전자는 실시간 동영상 구현의 동영상폰, 동영상 메일폰, 동화상 통화폰 등 동영상 서비스가 구현되는 동영상폰 뿐만 아니라 카메라 내장은 물론, 64화음 휴대폰 벨소리가 구현되는 64화음 카메라폰 같은 신제품도 선보였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팜 OS(운영체제)를 채용한 폴더타입의 지능형 복합단말기(MITs)를 비롯해 팜·MS(포켓 PC)·심비안 등 각종 OS를 채용한 다양한 지능형 복합 단말기도 선보였다.

또한, 삼성전자는 차량내에서 무선통신, GPS, 인터넷 등을 활용해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 텔레메틱스 제품들을 대거 선보여 텔레메틱스를 이용한 서비스를 관람객이 직접 시연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 처음으로 팜 OS(운영체제)를 채용한 폴더타입의 지능형 복합단말기(MITs)를 선보였으며, 팜·MS(포켓PC)·심비안 등 각종 OS를 채용한 다양한 지능형 복합단말기를 선보여 통신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제품 전시와 시연 이외에도 '애니콜 카메라폰'과 연계한 '카테일 쇼' 이벤트와 카메라폰 촬영 이미지를 프린터 해주는 '포토 프린팅' 이벤트, 영화 '매트릭스'를 활용한 '전자현악 3중주'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다양한 업체 참가로 관람객 호응 얻어

LG전자는 'Experience real 3G Telecommunication'라는 테마로 전시회를 이끌었다. LG전자의 전시규모는 48부스(130평)이며, 주요품목은 WCDMA 동화상폰 및 터치스크린 폰 등 20여종에 달했다.

이밖에도 KTF는 무선인터넷 독립관을 마련하여 로코모([www.rocomo.com](http://www.rocomo.com)), 그래텍([www.gamio.com](http://www.gamio.com)), 지어소프트([www.gaeasoft.co.kr](http://www.gaeasoft.co.kr)), 모바일웨이브([36 이천심년 월 · 광월호 정보화사회](http://www.mobilewa-</a></p>
</div>
<div data-bbox=)

ve.co.kr), IBS넷(www.ibsnet.co.kr), 다이렉트미디어(www.directmedia.net) 등 KTF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CP들이 참여하는 색다른 부스를 만들어 전시했다.

메이저 업체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함께 전시회에 참가하는 일은 이례적이었으나, 모든 서비스 종류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는 평을 이끌어 냈다.

이동통신이 주를 이루는 전시회이니 만큼 미국의 퀄컴(www.qual-comm.com)도 빠질 수가 없다.

퀄컴의 부스에는 브루 관련 소개와 자사 MSM 칩셋을 채용한 세계 휴대폰들이 화려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계측기, 안테나, 휴대폰 튜닝 등 다양한 정보통신 관련 업체들이 참가해 국제 전시회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